

12월의 안테나

노 영 한

(본지 편집국장)

보통 사람들

이제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추수감사절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되었다.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미국은 11월 세계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물론 공휴일이며 이 감사절이야말로 미국의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 주고 있다.

1620년 9월 영국의 청교도 102명(남자 78명, 여자 24명)이 150t의 오월의꽃(May flower호)을 타고 도미하여 plymouth에 정주한 것이 오늘의 미국대륙으로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위대한 혁명가도, 유명한 학자도, 능력있는 정치가도 아닌 그저 평범한 보통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영국의 구체제 아래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횡단하였다.

이들은 황금을 찾아 미국으로 간 것이 아니고 신앙의 자유와 자유스러운 사회생활을 위해 도미하였다.

이들은 조직으로 군림하지도 않았고, 세상을 감화시키고 지배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더군다나 명예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길었으며 원주민인 인디언의 습격은 이들을 더욱 괴롭혔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은 그중 마음착한 인디언들이 준 옥수수, 감자 씨앗으로 첫째 농사를 지은 것이 대풍을 이루었고 오늘날 전세계에 식량을 공급하는 농업대국으로까지 발전 하였다.

이들은 추수 후 제일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고, 감사의 생활화로 말끝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게 만들었다.

이때 남은 남자는 겨우 21명 뿐이었다.

이들은 미국에 가서도 추운 눈보라를 막아줄 자기 집보다는 교회들, 다음에 학교들, 다음에야 자기집을 지었다.

우리의 양계산업이 현체제로는 벽에 부딪혔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잡힌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을 듣게 된다.

양계산업을 제도적으로 안정발전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안정화 방안이 나오고, 기금거출 방안이 논의되고 양계산업을 안정발전시키는 일을 담당할 전담기구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지금은 영국에 앞서서 공론을 계속하기 보다는 신대륙으로 떠나 미국을 세워놓은 것 같이 양계업계를 바꾸어 놓을 102명의 보통사람들이 필요하다.

새로운 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기존 세력의 저항도 예상된다.

그러나 인디안들 중에서는 옥수수과 감자의 씨앗을 갖다주어 이 씨앗으로 농사를 지은 것 같이 기존 질서의 협조도 있는 것이다.

필그림 선조들이 자기집을 가장 뒤에 지은 것 같이 우선 기업을, 산업을 발전시키고 산업의 후계자를 양성한 뒤 그후의 여력이 있을 때 자기집을 지을 수 있는 정신자세가 요구된다.

황금을 쫓아 브라질로 건너간 브라질의 선조들은 황금도 자유도 얻지 못했지만,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간 이들은 자유도 황금도 모두 얻었다는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준다.

미국의 부로일러 계열화 초기에도 계열주체를 맡았던 사료공장들이 황금보다는 산업의 안정을 위하여 시작한 것이 결과는 산업의 안정과 함께 황금까지도 함께 얻게 되었다 한다.

한탕주의, 한건주의는 마치 도박과 같아서 돈도 못벌고 산업의 안정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100만 양계인 모두의 참여가 아니라도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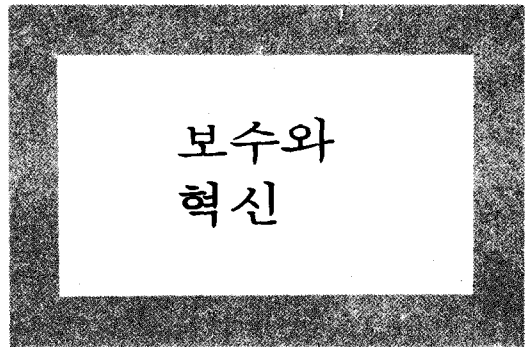
협회 회원 1500명의 1 할인 150명도 너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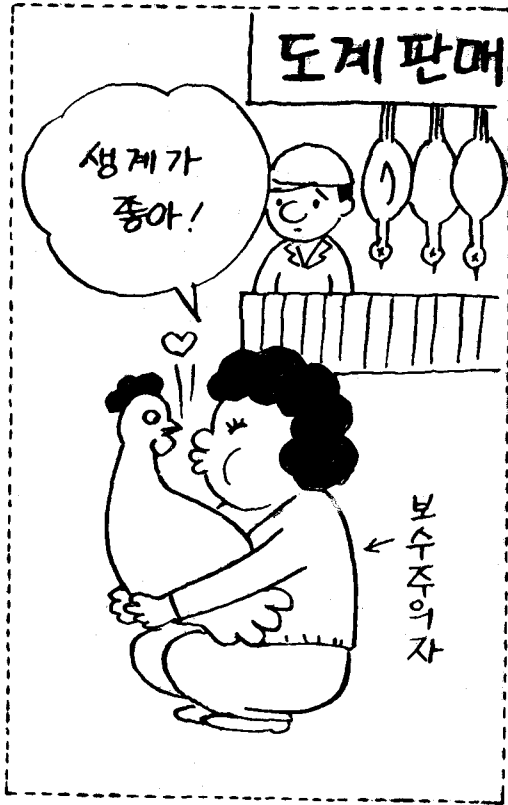
거창한 사람들보다는 102명의 보통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들이 그 커다란 미국대륙을 바꾼 것 같이 이들이 한국의 양계산업을 바꿀 것이며 그후에 다른 양계인들은 바다를 건너 새 체제로 건너올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농민들은 보수적 이라고 한다. 급격한 변화 보다는 안정을 바라는 심정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보수정당들이 지지 기반이 농촌이고 보수정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이나 EEC 여러 나라들이 막대한 재정적자



를 무릅쓰고 고미가 정책 또는 높은 농산물 가격정책을 쓰는 것도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다.

그러나 보수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하는 속도가 느릴 뿐이며 우리가 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서 배운 청포도의 사상과 같이 인간은 항상 변화있는 생활, 더욱 개선된 생활을 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최근 닭고기 유통을 생계에서 도제로 혁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모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로 반입되는 생계를 검문소에서 지도 단속하는 것도 유통을 하루 빨리 개선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적인 소비자는 아직도 시장에서 생계를 구입하고 있어 서울시를 애태우고 있으며 이틈에 부로일러 생산자는 닭값이 떨

어져 울상이다.

항상 개혁주의자들이 성급히 개혁을 하려 할 때는 많은 시행착오가 따르게 마련이다.

서울시의 닭고기 유통도 76년 너무 성급히 개혁하려다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는 하였지만 충분치 못해서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부작용이 발생한다.

언젠가는 시장도계가 없어질 것이고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면서도 없어지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생계상인들의 저항도 그 뿌리에는 어떠한 혁신적인 방법보다는 보수적인 방법으로 이들에게 큰 변화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들을 참여시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을 바라기 때문이다.

말과 행동에 신뢰있는 설득으로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우선 여건 성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보수주의적인 사고방식도 우리 업계가 발전하는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최근 사료가격 자율화 이후 일부 보수적인 공장들이 새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옛날의 가격 통제시대를 그리워 한다든가, 양계업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옛 방법을 고수하는 것 등이다. 끊임없는 연구와 새로운 기술 정보를 실제에 옮겨 변화와 개선을 해나가는 정신 자세가 업계 발전 기간을 앞당기는 길이다.

지나친 보수주의는 무사안일과 통한다. 양축가의 무사안일은 그 피해가 자기 개인에 국한되지만 공직자의 경우는 다르다.

어떤 변화를 싫어하고 현상유지에 집착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날 소지를 막기 위해 법 또는 행정명령으로 규제하게 되고 이 규제에 의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그것을 또 규제하여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정부에서 이러한 산업발전 저해 요인이 되

는 각종 법률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명년에는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된다고 하여 국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당초 통행금지가 해제되면 치안에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모두들 생각했으나 충북의 경우 별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

사료가격 자율화 때도 가격폭등이나 품질저하 등을 염려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은 자율화가 되지 않았으면 이 어려웠던 시기를 어떻게 넘겼을까 하는 생각만 해도 불필요한 규제가 얼마나 발전을 저해하였던 가를 알 수 있다.

도계 유통의 경우도 생닭을 없애고 그러고 보니 밀도계품이 나올 것이고 이를 단속하자니 도계장 검사품과 구별하기 위해 검인을 해야 하고 또 앞으로 부분육으로 판매되면 이것도 밀도계품을 방지하기 위한 또 어떤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 등 규제를 위한 규제 조치가 계속되어 오히려 도계장이 규제당하는 결과로 발전하게 된다.

종계의 경우도 한때는 규제와 단속을 위해 종란에 도장을 찍은 적이 있었다.

이제 규제를 하지 않아도 잘 될 수 있는 분야부터 규제를 풀어 성장 저해 요인을 없애야 하겠다.

한번 정해지면 바뀌기 어렵고 또 새로운 제도 도입이 어려운 보수적인 우리 실정이 안타까울 때가 많다.

많은 학자 전문가 업계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양계산업을(사료, 유통 포함) 안정시키는 길이 계열생산 체제이고 업계의 지속적인 발전 성장을 위해 양계 안정기금(Check off)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음에도 이것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 것은 지나친 보수주의 즉 지나친 무사안일에서 오는 것이나 아닐런지?

불황의 장기화와 우리의 반성

한중학생과 교사의 유괴 치사사건으로 온통 국내가 떠들썩하다.

중학교 교사는 놀음빚 몇푼이 학부형의 귀한 2대독자(독자가 아니라도 생명의 존귀함은 마찬가지다.)의 생명보다도 귀중하게 생각하였다.

더욱이 자기의 직장이나 체면을 더 귀중하게 생각 함으로써 자기제자까지도 범행에 끌어들이고 유괴된 학생의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여 더욱 고통을 주어왔다.

자기가 진 놀음빚이 세상에 알려지면 자기의 체면에 손상이 가고 그일로 인해 자기 직업에 영향이 올라가서 제자를 살해 하였다.

자기의 체면유지를 제자의 생명보다 더 중하게 생각한 이기주의의 극치이다. 우리사회가 나만잘먹고 잘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의 풍조가 만들어낸 작품의 절정이라고 하겠다.

욕심은 죄를,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른다는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말씀을 그대로 보여준다.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것은 T.V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시민의 표정이 모두들 저런사람은 종로네거리에 끌어내어..... 식의 극에 달한 표정들이다.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범인에 대해서 우리도 반성하고 책임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공해방지 시설을 해놓고도 사용료가 아까



워 밤에는 서울시민의 급수원인 한강에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서울시민 전체를 서서히 살해하는 행위가 아닐는지? 돈 몇푼 더 벌기 위해 불량 유해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은 어린 학생을 대량으로 서서히 살해하는 행위는 아닌지? 맨홀뚜껑을 훔쳐가 밤에 맨홀에 빠져 죽은 일등 이들이 과연 죄의식을 느끼며 주교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간음한 여인을 잡아 당당히 끌고온 군중들에게 예수께서 죄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고 하시자 모두들 물러간 2천년전의 유대인들에겐 오히려 양심은 있었던것 같다.

오늘날 같았으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서로 먼저 돌을 던지지 않았을까?

우리업계의 불황이 너무도 장기화 하고 있다. 양계업계뿐이 아니고 사료공장등 관련업체들도 어렵다고들 한다.

적은 기업은 큰기업이, 큰기업은 적은기업이 쓰러지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말은 물론 사실이 아니겠지만 우리업제에도 내것만 중하고 남의 것은 가볍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싹터 자라고 만연되면 한중학생의 유괴 치사사건과 같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다시한번 반성해야 될 일이다.



MEYUN 도계기의 베스트 셀러

과학축산시스템

서울·성동구 능동 246-10
(우성빌딩 203호) ☎ (445) 0212